

한국감정원 철농 한달째 '직군분류인사원칙'도입 반대

94. 7. 1. 노

한국감정원노조(위원장 김순구)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완전한 실현을 촉구하며 지난 5월27일 철야농성에 돌입, 현재 한달여를 넘기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감정원(원장 홍문신)측이 기존의 성차별을 통해 사내에서 불평등 근무조건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직군분류 인사원칙'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규정이 바뀌어진다면 남자 직원은 종합직에 여성 직원은 일반직에 일률배치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사태는 '경영진들의 반사회적 사고와 무지, 단전에 의한 경영형태 때문'이라고 강하게 경영진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김순구(35) 노조 위원장은 "무책임한 경영진들의 인사원칙 도입때문에 회사내 직원들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직군분류에 의한 차별적 인사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일호봉제의 올바른 인사원칙 수립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노조는 회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하고 직군분류 인사원칙을 도입하려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